

SK이노 “LG 배상금 과도하면 수용불가”

‘조 단위 차이’ 배상금, 좁히지 못해 SK “사실상 사업철수 하라는 말” LG “진정성 있는 제안해야 협의”

LG화학-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 공방 일지	
2019년 4월 29일	▶ LG화학, 미 ITC와 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소송
2019년 5월	▶ LG화학, 경찰에 SK이노베이션 산업기술 유출방지 보호법 위반 혐의 고소
2021년 2월10일	▶ 미국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LG화학 배터리 부문)에 일부 승소 판결
2021년 3월5일	▶ 미국 ITC 최종 판결문 공개
2021년 3월10일	▶ SK이노베이션 이사회, “배상금이 과도할 경우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회사측에 전달



▲SK본사 건물

SK이노베이션 이사회가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 관한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결정과 관련해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지속할 의미가 없거나, 사업 경쟁력을 현저히 낮추는 수준의 LG 측 요구 조건은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사는 이달 초 배상금 협상과 관련해 한차례 만났지만, 배상금 격차가 더욱 벌어져 합의에 이르는 길은 더욱 험난해진 상태다.

●SK 감사위, “과도한 합의금 수용 말라”

11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10일 이사회를 열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다. 사외이사 3명으로 이뤄진 SK이노베이션 감사위원회는 “LG에너지솔루션이 사업을 포기해야 할 만큼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말라”는 입장을 경영진에 냈다. 감사위원회는 ITC 소송 패배와 관련해 “소송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방어의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미국 사법 절차 대응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패소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SK이노베이션이 글로벌 사업을 더욱 확대해 가야 하는 시점에서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체계를 글로벌 기준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 솔루션

이 제시하는 합의금은 조 단위 차이가 난다. SK이노베이션은 5000~6000억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3조 원 이상의 합의금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최근 몇 년 간 배터리 사업이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10년 치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3조 원대 배상금을 내라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접으라는 이야기”라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SK이노베이션 감사위원회가 “과도한 합의금은 수용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면서,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사업 철수까지 고려한 배수진을 쳤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미국 대통령령의 ITC 최종 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기한(4월 12일)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한편 SK이노베이션 이사회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글로벌 소송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미국에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LG엔솔 “수용 불가는 어불성설”

LG에너지솔루션은 11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논의의 내용 공개에 대해 즉각 비판했다. “공신력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배터리 전 영역에 걸쳐 영업비밀을 통째로 훔쳐간 것이 확실하다고 최종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인식의 차이가 아쉽다”며 “증거를 인멸하고 삭제하고 은폐한 측면에서 이러한 결정을 인정하는 것이 합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스탠더드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연방영업비밀보호법에 근거한 당사자의 제안을 가해져 입장에서 무리한 요구라 수용불가라고 언급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며, 문제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사가 진정성 있게 협상 테이블에 와서 논의할 만한 제안을 하고 협의를 한다면 최근 보톡스 합의사례와 같이 현금, 로열티, 지분 등 주주와 투자자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보상 방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콤비교정’, 심미성 ↑ 비용부담 ↓ 노하우 갖춘 전문의와 함께 해라

사람의 치아는 음식을 저작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웃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부위이기도 하다. 때문에 치열이 고르지 않으면 외관상 보기에 좋지 않고 칫솔질이 구석구석 잘 되지 않아 충치가 생기거나, 잇몸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

고르지 못한 치열 때문에 고민인 이들은 치아교정 등 의료서비스를 대안으로 삼기도 한다. 치아교정은 교정장치의 종류, 부착 방향 및 위치 등에 따라 종류가 다양한데 기존에 주로 시행되어온 방법은 일반교정(순측교정)과 설측교정이 있다. 일반교정은 교정장치를 치아 밖으로 부착하는 방법이고, 설측교정은 치아 안쪽으로 교정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은 각각 전체 교정을 실시할 경우 비용적인 부담이 비교적 큰 데다 순측교정의 경우에는 전체 교정 시 심미성 역시 상대적으로 떨어져 치료를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기존 치아교정 방법을 결합한 방식의 치아교정인 ‘콤비교정’이 시행되고 있다.

‘콤비교정’은 윗니에는 교정장치를 치아 안쪽에 붙이는 설측교정, 아래 치아에는 치아 앞쪽에 교정장치를 붙이는 순측교정을 각각 적용해 진행하는 치아교정 방법이다.

콤비교정은 아랫니에 비해서 노출 빈도가 높은 윗니에 장치를 안쪽으로 붙이기 때문에 심미적인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아랫니에는 순측으로 교정을 진행함으로써 인해 이물감이 적고 혀의 움직임이 비교적 자유로워 받들 수 있다.

콤비교정은 환자의 구강 상태와 출혈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치아교정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의를 통해서야 높은 치료 만족도를 기대할 수 있다.

대치동 치과 바른이만들기치과 박태준 원장



‘LH 투기’ 1차 조사결과 발표...시민단체 “예상보다 매우 적어”

투기의혹 기준 13명 외 7명 추가 확인 차명거래 등으로 인한 조사 한계 지적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등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와 LH 직원, 총 1만43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 조사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 소유자는 모두 20명(국토부 0명, LH 2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에서 투기의혹을 제기한 기준 13명 외에 7명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창릉 2명, 남양주왕숙, 과천과천, 하남교산 각 1명이었다.

정 총리는 “투기 의심 사례 20건 가운데 11건이 변장형 국토교통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문제에 대해 변 장관이 책임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집행하겠다.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하고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

기이익을 빼집없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조사 방식 자체가 차명거래 등 실제 발생 우려가 높은 투기 의혹을 찾아내기에는 애초부터 불가능했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끊이지 않는 시선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정부의 발표 이후 투기의혹사례 20건에 대해 “예상보다 매우 적다. 떠들썩했던 정부 합동 조사의 한계가 분명했다”며 “정부 합동조사단의 자체 조사와 별개로 증거인멸 전에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GS칼텍스-기아, 전기차 초급속 충전 인프라 확대

GS칼텍스와 기아가 11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설치 투자 및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기아는 수도권(서울, 인천, 수원, 구리)에 위치한 GS칼텍스 주유소 4곳에 350kw급 초급속 충전기 1기와 200kw급 충전기 7기 등 총 8대의 충전기 설치에 투자하고, GS칼텍스는 운영 및 관리를 맡아 상반기 내 충전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달 공개될 예정인 기아 전기차 E V6는 800V 충전시스템을 갖춰 초급속 350kw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18분 이내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올해의 인물’ 정의선 회장 “퍼스트무버 될 것”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 선정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0일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뉴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퍼스트무버가 되기 위한 노력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

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날 서울 흥동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 ‘2021 대한민국 올해의 차’ 시상식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저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신 이유



정의선 회장

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인류를 위해 공헌하겠다는 저희 그룹의 미래 비전을 앞장서서 실현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차세대 전용 전기차 모델 출시와 더불어 에이치2(H2) 브랜드를 앞세워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

가받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다양한 모빌리티 산업 분야의 동력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유에이엠(UAM), 로보틱스 등 미래성장 동력과 신기술에 대한 꾸준한 연구개발과 투자로 인류의 자유로운 이동과 평화로운 삶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성열 기자 mynhuki@donga.com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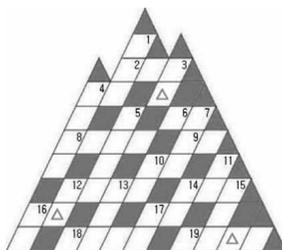
■ 스도쿠문제

		9	8	4				
			2	6				
8		7	4	2		1		
	1		6			9		
7		5	4	2	6		8	
	9			1			2	
5		4	2		1		6	
			1	4				
		3	5	9				

■ 스도쿠정답

2	7	6	1	9	8	5	3	4
1	9	8	7	2	6	4	5	3
9	8	1	2	5	3	7	4	6
5	2	8	1	4	9	6	7	3
9	1	9	2	6	7	5	8	4
4	6	2	9	5	8	1	3	7
1	9	2	8	7	6	4	5	3
6	8	5	9	1	2	3	7	4
8	2	7	1	8	9	5	4	6
9	8	9	7	2	6	1	8	4
6	2	8	9	1	2	9	8	7
2	7	1	9	8	6	7	9	5
9	1	8	6	2	7	9	4	3
8	9	7	2	5	4	6	1	3
6	8	5	9	1	2	3	7	4
7	9	1	6	2	8	1	5	3

■ 낱말문제



■ 가로열쇠

02.교분이 매우 두터운 벚. ‘ㅇ금ㅇ’
04.이성과 육체 관계가 없음. 06.윗사람으로 떠받들. 08.찾았을 내지 않고 차를 탐. 09.이상하게 사람의 눈이나 마음을 호리어 끄는 힘.

10.비축해 두었던 물품이나 자금 따위를 내놓음. 12.실패를 이용하여 도리어 공이 됨. 14.가을 이슬을 받은 물. 16.좋은 운수. 행복한 운수. 17.서로 잇대어 줌. 18.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음. 19.싸우는 족족 모조리 이김. “백ㅇ백ㅇ”

■ 세로열쇠

01.매우 부드러운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03.머리 위에 받쳐서 비를 가리는 우비. 04.마음과 몸이 깨끗해 더러운 때가 없음. 05.우월한 자가 이기고 열등한 자가 지는 일. 07.많은 물건을 마련하여 대대적인 선전을 하면서 값싸게 팔거나 경품을 붙여 팔. 10.공산주의 세력을 막아냄. 11.어지럽게 갈래가 저 한번 들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삼각형을 이 어놓으면 산 여러분이 아시는 산 이름이 됩니다.